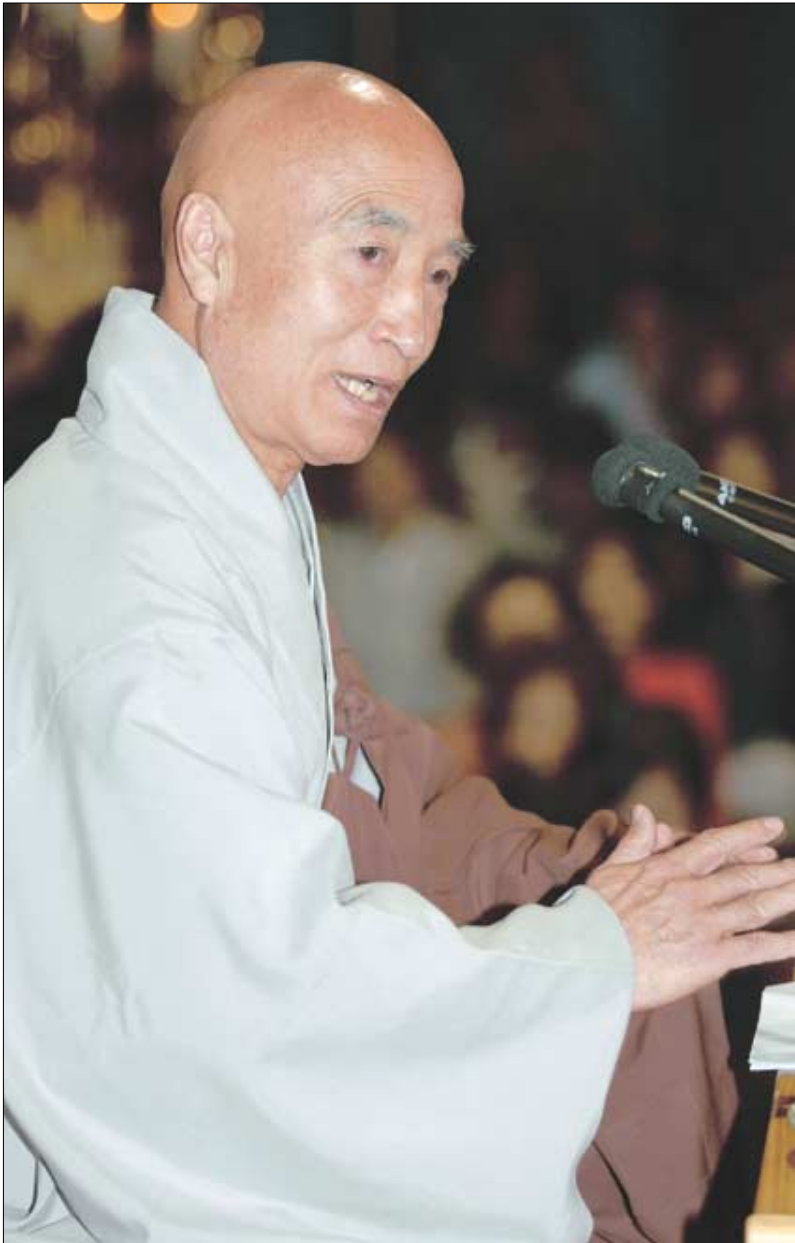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12

주제 : 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이쪽에도 저쪽에도 떨어지지 말라



설정(雪靖) 스님

설정 스님은 1955년 수덕사 원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 61년 법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이판과 사판을 초월해 덕승 가풍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2000년 미국 텍사스 태광사를 창건하기도 한 스님은 현재 불암사, 상원사, 청량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에 몰두하고 있다.



설정 스님

(덕승총림 수덕사 수좌)

(주장자 세 번 내리치시고
산색문수안(山色文殊眼)
수성관음이(水聲觀音耳).

소승이 조금 전 짧은 계승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 용인 즉, 산색은 문수안이라, 산색뿐만 아니라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문수의 눈이다. 수성은 관음이 라, 물소리는 그대로 관세음보살의 음성이다. 법문을 들을 때 마음을 다 비워 듣는다면 굳이 제 법문이 아니라도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문 수의 모습일겁니다. 또 바람소리 새소리 모두 관세 음보살의 음성일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법을 간절 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설해지지 않으면, 법을 잃 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법문 듣는 사람이 법문 듣는 자세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문한다 면, 그 또한 법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 부대중은 어느 위치, 어떤 자세로 법문을 듣는지 스 스로 되돌아볼 일입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하게, 편안하게, 영원히 살고 싶 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됩니다. 그 근원인인은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부처님 법은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자성을 깨우치게 해 무한한 생명을 얻고 무한한 나를 얻게 해 줍니다.

깨침은 꿈에서 깨어 나는 것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49년 동안 많은 방편문을 열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행방법에는 열불 도 있고, 주력도 있고, 간경도 있고, 육바라밀도 있 습니다. 한용운 선사(韓龍雲 · 1879~1944)는 “선이 라고 하면 이미 선이 아니다. 선이 아니면서 선이요 선이면서 선이 아닌 것이 선이다”라고 말씀했습니 다. 한국불교는 통불교입니다. 통불교를 지향하지 만 수행법은 사교입선(捨教入禪)을 지향합니다. 교 리를 다 알았으면 내려놓고 선에 들어가라는 것입 니다.

망심(妄心)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선(禪)입니다. 그 자리에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定)입니다. 이것 이 선정(禪定)입니다. 돈오(頓悟)는 단박에 깨치는 것입니다. 참나에 무명을 다 끊어 자기 본성을 깨닫 는 것입니다. 돈오는 무념을 종(宗)으로, 청정을 체 (體)로, 지혜를 용(用)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무념, 무심은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도 일체 동요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무념, 무심, 보리, 열반, 해탈, 견성, 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지 않 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중도, 돈오라는 것은 이분 법적 사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색즉시공(色卽是 空) 공즉시색(空卽是色) 또한 중도를 일컫습니다. 특히 선가에서는 쌍차쌍조(雙遣雙照)라고 합니다. 일체 것을 다 부정합니다. 텅 비어 비어있다는 그 자체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묘유(眞空妙有)라 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 ‘금강신품’에 ‘이 마음 자리는 밝고 밝아서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할 것 도 없다’고 합니다.

유무·선악·고락·취사 다 놓아라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은 일대사 인 연입니다. 일대사 이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 개 시오입(佛示悟入)한 것입니다. 원래 마음이라는 것 은 그냥 한 물건입니다. 광대무변한 우주에 자신을 비춰보면 사람은 티끌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이 조 그마한 것에 육합(六合)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한 물건이야말로 삼재(天地人)의 주인입니다. 만법 의 왕입니다. 높고 높아서 비교할 수 없고, 넓고 넓 어서 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신비롭고 신령스러운 이 한 물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물건을 천지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천지보다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 께서 설산(雪山)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시고 바로 이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달마 대사(達磨 · ?~528?)가 서쪽에서 오신 것도 중생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 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법은 상대법(相對法)이자 생멸법(生滅法)입 니다. 이 세계 삼라만상은 성주공공(成住壞空)을 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위법(有爲法)입니다. 그 러나 생멸법으로는 부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없습

니다. 부처님 몸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가의 계승중 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각산중생일수(圓覺山中生一樹)
원각산에 자라는 한 그루 나무
개화천지미분전(開花天地未分前)
하늘 땅 있기 전에 꽃이 피었네
비청비백적비흑(非青非白非黑非)
푸르지도 희지도 검지도 않아
부채춘풍부재천(不在春風不在天)
봄바람 안 불어도 계절 없이 피어 있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갈 때 불성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왜 안 따라갑니까.” “마음자리가 상주불멸 생멸법이 아 니기 때문에 지옥이나 천당에 가도 영향을 받지 않 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옥에 들어갑니까”라고 말합니다. 대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에 들어가 는 것은 중생업연(衆生業緣)이다. 우리가 고통 받는 것은 업연으로 고통 받는 겁니다. 업연은 생멸법입 니다.

법문은 이론을 갖다 붙여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 다. 진리는 말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화경> 에서 “이 법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고 심행처멸 (心行處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 게도 선사들의 말은 많습니 다.

당나라 때 유명한 선사였던 마조 스님(馬祖道一 · 709~788)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을 자주 쓰 셧습니다. 어느 스님이 마조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합니까.” “어린아 이 우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스님이 또 짓궂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쳤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처도 마음도 아니 다.” 그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음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놔 버리면

‘묻고 답하기’ 현장

▲부처님께서 일체의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 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무정물이 될 경우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肉身)이고, 두 번째는 업신(業身)이고, 세번 째는 법신(法身)입니다. 이 중 법신은 오고가지 않습니다. 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지만 하면 그 순간부터 무위진인입니다. 그대 서 불법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마음이 법신입니까?

-당연합니다. 돈오라는 것은 법신을 증득한 겁니다. 참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 고 미워하는 마음만 놔버리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 보게 될 겁니다.

▲천천백 공안 중 어떤 화두를 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달마 대사가 소림굴에 있을 때 헤가 스님(慧 可 · 487~593)이 몇 번을 찾아가서 법을 청했습 니다. 그러자 달마 대사가 “이 법은 소중하고 소 중한데 네가 어떤 마음으로 법을 들으려고 하는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할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 록 무무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지만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 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원이 복원 불사 중 명승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육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출 방향 신갈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원 합장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해!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최고의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서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풍도사, 법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집 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기도를 하면서 영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면서 동양의학에 공신을 갖고 해침 을 비롯하여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지 치료프로그램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 장육부의 질환과 뇌관심경통, 요통, 오십년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 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격 근육을 강화해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관을 맑게하고 골개이면서 활력소원을 전출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 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 의술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법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 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경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 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할만한은 원리를 이용했 기 때문에 삼배(배식,배변,배변)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홍현희)
내신신의건강과 내가족의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자킴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킴이 되었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5월9일-조계사 대웅전)



설정 스님은 부처님 뿐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도 진리의 빛이 있다며 열심히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쳤고 그 상태가 아닌 사람이 보면 뭐라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그럼 위세 가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대도(大道)나 뭐야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선방에 가면 때문에 '이 속에 들어왔으면 모든 일음알이를 다 뇌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은 보리심, 진여, 정념을 말합니다. 그럼 정념(正念)은 무엇이고 사념(邪念)은 무엇입니까. 유무, 선악, 고락, 취사를 생각하면 사념입니다. 이를 떠나면 정념, 돈오입니다.

타인의 욕감에 놀아나면 혼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선을 해야 쉽게 할 수 있을 까요. 우선 마음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중생은 업과 환경에 끌려 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환경이나 상황에 절대 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은 팔풍(八風)에 흔들리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싹다보면 고통스러운 것도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 그래서 전 조계종 중흥이셨던 호봉 스님(晩峰·1888-1966)도 '이쪽저쪽에도 떨어지지 마라. 이쪽저쪽에도 발붙일 수 없는 견해를 이르렀을 때 비로소 무위진인(無位真人)을 만날 것이다. 그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다' 라고 계승을 지으셨습니다.

간화선을 하는 우리들은 화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활구하(活句)하에 깨달으면 불조(佛祖)와 더불어 스승이 되지 만 사구하(死句)하에 얻은 바가 있다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부처님의 진면목을 가르친 것이 화두성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趙州·778-897)께 들었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풍 막대기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 때 무늬는 유무(有無)의 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간화선입니다. 선사들이 상대에게 화두를 던져줄 때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도록 합니다.

나옹 스님(懶翁慧勤·1320~1376)은 한 찰나 사이에 9백 생멸(生滅)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멸이 일어나고 꺼지고 할 때 그 순간 화두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두를 들다보면 모든 망상은 끊어지지만 화두가 없어지고 그냥 즐겁고 편안하기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기(無記)라고 합니다. 번뇌망상이 끊어졌을 때 화두가 분명히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상적경(惺惺寂寂) 적적성성(寂寂惺惺)하다고 합니다.

화두 들 때 앞뒤가 다 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등정일여(動靜一如)해야 합니다.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항상 화두가 가만히 자리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오매일여(癡寐一如)해야 합니다. 잠잘 때도 들어가 있어야 하고 깨어있을 때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절에 가면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는 표현을 합니다. 백척이나 되는 까마득한 대나무 끝에서 죽기를 무릅쓰고 한발을 내딛는다는 겁니다. 모든 번뇌망상 다 쉬어버린 것은 아라한과(阿羅漢)를 뜻합니다. 그것을 멸진정(滅盡定)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에 간 사람을 견성했다고 합니다.

팔풍에 덜 흔들리면서 동처부동주(同處不同住)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점차로 나아가다 보면 한번에 꿈을 깨는 극적인 상황이 옵니다. 모든 번뇌망상의 맥구름이 없어지고 청정한 자성이 나타나서 영원히 사는 길이 불법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수지왕사일륜월(誰知王舍一輪月) 만고광명영불멸(萬古光明永不滅)

누가 알 것인가. 왕사성 위에 높이 떠 뿔개 빛나던 달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이라. 부처님은 왕사성에서 성도해 모든 중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그 빛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혜의 빛을 찾아 다니는 생사에 해매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쳐졌습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백재원 기자

“법문, 테이프 들으세요”

설정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야(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0>
내 것 아니면 모두 버려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은 보통 사람들에게 뿌리깊게 박혀 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애착보다 더 강한 것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돈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그래서 경제적으 이노 정도 안정이 되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 온갖 보약을 구한다. 육신이 병이 생기거나 소유물을 잃으면 고통에 빠진다. 이런 고통은 근본적으로 자신이나 소유물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나의 남편이나 자식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 절실한 고통을 느낄 수 없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도난 당했다는 뉴스를 접해도 상관없지만 자기 집에 있는 꽃병이 떨어져 깨어지면 마음은 아프다. 그 꽃병에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지만 자기가 깬 것이 있으면 그 고통은 더 깊어질 것이다. 나라는 의식과 소유의식이 있는 한 고통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아의식이 나 소유의식이 없으면 사람에겐 진정한 행복이

육체·정신은 나도 아니고 내것도 아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 모두 버리면 고통 사라져

있을 것이다. 붓다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나(我)와 나의 것(我所)이라는 잘못된 소견이 일어날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다. 그것은 육체(色蘊), 감정(受蘊), 인식(想蘊), 의지(行蘊), 의식(識蘊)이다. 무지해서 어진 사람을 가짜이 하듯 알고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이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여 바른 생각을 잃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아견(俄見)이나 아소견(俄所見)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섯가지를 애착하기 때문이라고 붓다는 먼저 밝히고 있다. 육체(色), 감정(受), 인식(想), 의지(行), 의식(識)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오온이라고 한다. 오온을 분석해 보면 색은 육체(色, 수?상?행?식은 정신 작용을 세분한 것이다. 오온은 결국 현대인에게 익숙한 심신(心身) 분류법인 것이다. 단지 육체와 정신 중 정신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해 놓은 것이다. 붓다는 사람들이 육체와 정신에 대해 나 또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특선1 중국 실크로드 10일
특선2 인도 케미 배낭여행 10일
특선3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특선 상품담당 : 심홍훈 011-749-5010
티벳, 네팔 순례 12일
수미산 순례 25일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해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사만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